



나오면 EBS 연계인 문법 내용

★ 결합침이 포함된 된소리되기

결합침에 사용된 자음은 모두 ‘발음 고려’의 대상임.

읽다[일따] :

할다[할따] :

1. <보기 1>의 ㉠~㉢은 실현되는 발음은 아니지만, 음운 변동의 과정에서 거치는 발음들이다. ㉠~㉢에 알맞은 발음을 쓴 후, ㉣~㉤에는 <보기 2>에 제시된 음운 변동 중 하나를 골라 쓰시오.[수특 화작언 188쪽 3번]

보기 1

- 읊조리다 ----->(㉠)----->(㉡)----->[읍조리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경음화 (㉢)
(음절 말 평파열음화) (된소리되기)
- 묻히다----->(㉣)----->[무치다]
격음화 (㉤)
(거센소리되기)
- 받이랑----->받이랑----->(㉥)----->[반니랑]
음절의 끝소리 규칙 ‘ㄴ’ 첨가 (㉦)
(음절 말 평파열음화)

보기 2

유음화, 비음화, 반모음 첨가, 구개음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음절 말 평파열음화), 자음군 단순화

- ㉠:
- ㉡:
- ㉢:
- ㉣:
- ㉤:
- ㉥:
- ㉦:
- ㉧:
- ㉨:



★ 로마자 표기법

‘표기대로’ 쓰는 게 아니라 ‘발음대로’ 쓴다.

‘발음대로’는 ‘음운의 변동’까지 포함하는 내용이다.

다만,

㉠ 된소리되기

㉡ 체언에서 일어나는 거센소리되기(자음축약)

두 가지는 무시한다.

(1) 모음

ㅏ	ㅑ	ㅓ	ㅕ	ㅡ	ㅣ	ㅞ	ㅟ	ㅛ	ㅜ
a	eo	o	u	eu	i	ae	e	oe	wi

ㅙ	ㅚ	ㅜ	ㅠ	ㅞ	ㅟ	ㅛ	ㅜ	ㅛ	ㅜ	ㅠ
ya	yeo	yo	yu	yae	ye	wa	wae	wo	we	ui

(2) 자음

ㄱ	ㄲ	ㅋ	ㄷ	ㄸ	ㅌ	ㅍ	ㅑ	ㅑ	ㅑ
g,k	kk	k	d,t	tt	t	b,p	pp	p	

ㅈ	ㅉ	ㅊ
j	jj	ch

ㅅ	ㅆ	ㅎ
s	ss	h

ㄴ	ㅁ	ㅇ	ㄹ
n	m	ng	r,l

구리 :

칠곡 :

대관령 :

낙동강 :

잡히다 :

집합 :



2. <보기>를 참고하여 (1)~(3)의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로마자를 쓰시오.[수특 화작언 198쪽 5번]

보기

-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
- ‘ㄱ, ㄷ, ㅂ, ㅅ, ㅆ’은 각각 ‘kk, tt, pp, ss, jj’로 적는다.
- 거센소리로 축약되는 현상은 표기에 반영하고,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 ‘ㄹ’은 모음 앞에서 ‘r’,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되, ‘ㄹㄹ’ 소리는 ‘ll’로 적는다.
-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오는 경우에는 ‘ㅎ’을 밝혀 ‘h’로 적는다.

(1) 법석 [법ㅅㅅ] → __ eo_____ eo__

(2) 칼날 [칼ㄹ] → ka___ a__

(3) 석학 [서ㅅ] → seo_____ ak

3. <보기>의 ‘고유 명사’를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표기할 때, ㉠~㉥를 적절하게 구분한 것은?[수특 화작언 265쪽 2번]

보기

고유 명사	표준 발음	로마자 표기	음운변동의 표기 반영 여부
별내	[별내]	Byeollae	㉠
동막	[동막]	Dongmak	㉡
울산	[울싼]	Ulsan	㉢
김현전	[지편전]	Jiphyeonjeon	㉣
항여울	[항녀울]	Hangnyeoul	㉤

	반영	미반영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



★ 외래어 표기법

※ 틀리기 쉬운 외래어 모음

	O	X
accent	악센트	액센트
accessory	액세서리	악세서라
biscuit	비스킷	바스켓
body	보디	바다
buffet	뷔페	부페
business	비즈니스	버저너스
carol	캐럴	캐를
Catholic	가톨릭	카톨릭
comedy	코미디	코메타
concept	콘셉트	컨셉
control	컨트롤	콘트롤
document	도큐먼트	타큐먼트
dynamic	다이내믹	다이나믹
Hollywood	할리우드	헐리우드
jurassic	쥬라기	쥬라카
message	메시지	메세자
nonsense	난센스	년센스
oxford	옥스퍼드	옥스포드
Singapore	싱가포르	싱가플
symbol	심벌	삼블
symposium	심포지엄	삼포지움
target	타겟	타겏
window	윈도	윈도우

외래어 표기법에 사용하는 받침 : ㄱ, ㄴ, ㄹ, ㅁ, ㅂ, ㅅ, ㅇ

‘ㄷ’ 말고 ‘ㅅ’을 쓰는 이유 :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했을 때의 발음 고려

4. <보기>를 보고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수특 화작언 252쪽 4번]

보기

외래어 표기법 제3항에서는 받침에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쓰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은 외래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올 때 이 7개의 자음들만 발음되는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예를 들어, ‘book’은 ‘북’으로 표기할 수도 있으나 뒤에 조사 ‘이’, ‘을’ 등이 오면 ‘[부기]’, ‘[부글]’로 발음되는 점을 반영하여 ‘북’이라고 적는다. 만약 ‘[부키]’, ‘[부쿨]’로 발음한다면 ‘북’으로 적었을 것이다. ‘racket’을 ‘라켓’으로 적지 않고, ‘라켓’으로 적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 ① ‘숍(shop)’의 받침 ‘ㅂ’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 ‘ㅍ’으로 발음된다.
- ② ‘캣(cat)’의 받침 ‘ㅅ’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 ‘ㅅ’으로 발음된다.
- ③ ‘킵(kick)’의 받침 ‘ㄱ’은 실제 발음에서는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없다.
- ④ ‘톱(top)’의 받침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올 때 ‘ㅂ’으로 발음된다.
- ⑤ ‘로봇(robot)’의 받침은 뒤에 어떤 조사가 와도 항상 ‘ㅅ’으로 발음된다.



★ 직접 인용 → 간접 인용

많은 것이 바뀌게 됨. **틀린 그림 찾기**처럼 다 찾을 것.

5. <자료>의 직접 인용절을 간접 인용절로 바꾸려고 할 때,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의 밑줄 친 부분을 채우고, ㉡~㉢에서 어떤 말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쓰시오.[수특 화작언 207쪽 2번]

보기

- (1) (어제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을 한 상황)
 - ㉠ 어제 아들이 나에게 **“제가 내일 우체국에 갈게요.”**라고 말했다.
 - ㉡ 어제 아들이 나에게 _____ 말했다.
- (2) (할머니가 길에서 다치셔서 집에 있는 나에게 전화를 한 상황)
 - ㉠ 할머니께서 **“여기로 구급차를 불러 줘.”**라고 하셨다.
 - ㉡ 할머니께서 _____ 하셨다.

- (1) 자기가 오늘 우체국에 가겠다고
 - ㉠ 대명사: _____ → _____
 - ㉡ 시간 표현: _____ → _____
 - ㉢ 인용절 속의 서술어: _____ → _____
- (2) 거기로 구급차를 불러 달라고
 - ㉠ 공간 표현: _____ → _____
 - ㉡ 인용절 속의 서술어: _____ → _____

★ 지시 표현, 대응 표현

지시 표현 : 그냥 가리키는 표현

대응 표현 : 말한 적 있는 걸 대신하는 표현

6. <자료>의 ㉠~㉢을 지시 표현과 대응 표현으로 구분하고,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이유를 쓰시오.[수특 화작언 210쪽 1번]

자료

경호: 우리 반이 요즘 너무 활기가 없는 것 같지 않아?
수진: 음, 그건 그래. 반 분위기를 뭐로 떠올 수 있을까?
경호: 방과 후 활동에서 이름 삼행시로 재미있게 친구를 칭찬해 주기. ㉠이 생각 어때?
수진: 아, ㉡**그게** 좋은 생각인데? 일단 계획을 같이 짝 친구 이름부터 써 보자.
경호: 자, ㉢이 펜으로 적어 봐.
수진: 이거는 빨간색이니까 ㉣**저기**로 쓸게.
경호: 아, 미안해. 이름을 빨간색으로 쓸 뻔했네.

- (1) ㉠ 지시 표현: _____
- ㉡ 지시 표현인 이유: _____
- (2) ㉢ 대응 표현: _____
- ㉣ 대응 표현인 이유: _____



★ **조음 위치? 조음 방법?**

동화 : 같아지는 것.

㉠ 비음화, 유음화 : **조음 방법만** 같아짐. (조음 위치 변하지 않음)

㉡ 구개음화 : **조음 위치만** 같아짐. (조음 방법도 결과적으로 따라서 변함) - **둘 다 변함.**

7. <보기>를 바탕으로 음운 변동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수특 화작연 218쪽 1번]

보기

조음 방법 \ 조음 위치		조음 위치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
파열음	평음(예사소리)	ㅂ	ㄷ		ㄱ	
	경음(된소리)	ㅃ	ㄸ		ㄲ	
	격음(거센소리)	ㅍ	ㅌ		ㅋ	
파찰음	평음			ㅈ		
	경음			ㅉ		
	격음			ㅊ		
마찰음	평음		ㅅ			ㅎ
	경음		ㅆ			
	격음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 ① ‘굳이 → [구지]’에서는 음운 변동의 결과,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모두 바뀌었다.
- ② ‘늑는다 → [농는다]’에서는 음운 변동의 결과,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모두 바뀌었다.
- ③ ‘종로 → [종노]’에서는 음운 변동의 결과, 조음 위치는 그대로이며 조음 방법이 바뀌었다.
- ④ ‘입마개 → [임마개]’에서는 음운 변동의 결과, 조음 위치는 그대로이며 조음 방법이 바뀌었다.
- ⑤ ‘잘나다 → [잘라다]’에서는 음운 변동의 결과, 조음 위치는 그대로이며 조음 방법이 바뀌었다.



★ ‘ㅎ’과 관련한 음운 변동

㉠ 음절의 끝소리 규칙

㉡ 자음군 단순화

㉢ ‘ㅎ’ 탈락

㉣ 거센소리되기(자음 축약)

8.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수특 화작언 222쪽 3번]

보기

‘ㅎ’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ㅎ’이 평음과 곧바로 합쳐져 격음(거센소리)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어간의 끝 ‘ㅎ’ 뒤에 평음 ‘ㄱ, ㄷ, ㅈ’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는 경우 ㉠

• 어근의 품사가 동사 또는 형용사이며 ‘ㅎ’으로 시작하는 접미사와 결합하는 경우 ㉡

둘째, ‘ㅎ’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이지만 격음화(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어간의 끝 ‘ㅎ’ 뒤에 비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는 경우 ㉢

• ‘ㅎ’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하는 경우

- ① ㉠: 앓힘[안침]
- ② ㉠: 많고[만 : ㄱ]
- ③ ㉡: 빵는[빤 : ㄴ]
- ④ ㉢: 종던[조 : ㄷ]
- ⑤ ㉣: 넓히는[널피는]



★ ‘ㄹ-ㄴ’ 환경에서의 변화

㉠ ‘ㄹ’탈락

예) 늙는, 따님

㉡ 유음화(순행적 유음화)

예) 갈날, 달님

cf.) ‘ㄴ-ㄹ’ 환경에서의 변화

㉠ ‘ㄹ’의 비음화

예) 음운론, 의견란

㉡ 유음화(역행적 유음화)

예) 신라, 한라산

9. <보기>의 ㉠과 ㉡의 예를 모두 올바르게 제시한 것은?[수특 화작언 222쪽 4번]

보기

유음과 어떠한 자음이 만날 때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유음 뒤에 경음(된소리), 격음(거센소리), 파찰음, 유음이 올 때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유음 뒤에 ‘ㄴ’이 오면 ㉠유음이 탈락하거나, ㉡유음 뒤의 ‘ㄴ’이 ‘ㄹ’로 교체된다.

	㉠	㉡
① (생물이) 늙는[능는]	일념[일렴]	
② (벌레가) 우니[우 : 니]	혼란[홀 : 란]	
③ (소원을) 비니[비 : 니]	실눈[실 : 룬]	
④ (사람이) 사네[사 : 네]	한라산[할 : 라산]	
⑤ (물건이) 닳는[달른]	곤란[골 : 란]	



★ 표기에 반영

음운 변동의 '그 결과대로' 쓰는지 여부 확인

10. <학습 활동>을 수행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수특 화작연 223쪽 5번]

학습활동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며 음운 변동이 일어날 때, 모음 또는 반모음의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변동의 결과를 표기에 반영하면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게 되고, 반영하지 않으면 발음과 표기가 불일치하게 된다. 아래의 ㉠~㉥에 대하여 음운 변동과 표기 반영 여부를 파악해 보자. (단, 음의 장단(長短)은 고려하지 않는다.)

- ㉠: 뜨- + -어 → 떠[떠]
- ㉡: 쏘- + -아 → 쏘[쏘:]
- ㉢: 끼- + -어 → 끼어[끼여]
- ㉣: 사- + -아서 → 사서[사서]
- ㉤: 기다리- + -어서 → 기다려서[기다려서]

- ① ㉠에서는 음운의 교체가 일어났고, 표기에 반영되었다.
- ② ㉡에서는 음운의 축약이 일어났고,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 ③ ㉢에서는 음운의 축약이 일어났고, 표기에 반영되었다.
- ④ ㉣에서는 음운의 탈락이 일어났고, 표기에 반영되었다.
- ⑤ ㉤에서는 음운의 교체가 일어났고,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 형태소 나누는 법 vs 단어 나누는 법

11.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의 활동을 할 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수특 화작연 224쪽 1번]

보기 1

형태소는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단위로 단어의 구성 성분이 될 수 있다. 가령, ‘입’처럼 하나의 형태소가 동시에 하나의 단어인 경우도 있고, ‘높이’처럼 ‘높 -’, ‘- 이’의 두 형태소가 결합하여 한 단어를 이루는 경우도 있다.

보기 2

※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을 형태소와 단어로 분석해 보자.

마당을 깨끗하게 치웠다.

	형태소	단어
마당을	마당, 을	마당, 을
깨끗하게	㉠	㉡
치웠다	치우-, -었-, -다	치웠다

	㉠	㉡
①	깨-, ㅁ-, -하-, -게	깨끗, 하게
②	깨끗-, -하-, -게	깨끗, 하게
③	깨끗-, -하-, -게	깨끗하게
④	깨끗-, -하게	깨끗, 하게
⑤	깨끗-, -하게	깨끗하게



★ 품사의 통용

‘같은 형태(용언은 기본형 기준)’의 단어가 ‘다른 품사’로 쓰이는 것.
나름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조사 결합 여부 : 조사가 결합했으면 체언(명사, 대명사, 수사), 결합하지 않았으면 체언이 아니다.
띄어쓰기 여부 : 밑줄 친 말을 앞말과 띄어 쓰지 않았으면 조사, 띄어 썼으면 조사가 아니다.

(추가)

- 활용도 안 하고 조사 결합 절대 안 되면서 뒤에 오는 명사 꾸미는 것 : 관형사
- 활용도 안 하고 혼자 멍뚱 멍뚱 쓰였는데 딱 명사 꾸미는 느낌은 아닌 것 : 부사
- 부사 같은데 조사가 결합했다 : 체언
- 뭔가 조사만 떨어진 느낌이다 : 부사

12. <보기>의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수특 화작언 227쪽 1번]

보기

형태는 동일하지만 각기 다른 품사로 쓰이는 단어들이 있다. 이들의 품사를 정확히 구분하려면 문장에서 이들 단어들의 쓰임이나 기능, 의미 등을 잘 따져 보아야 한다.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단어들의 품사를 살펴보자.

- [가] [그대여! ㉠그 마음 변치 마오.
㉡그가 목소리를 높여 연설하기 시작했다.
- [나] [모두 웃고만 있을 ㉢뿐이지 말이 없었다.
이제 믿을 것은 오직 실력㉣뿐이다.
- [다] [약속 시간이 ㉤언제였더라.
시간이 나면 ㉥언제 만납시다.
- [라] [하나 ㉦만 알고 둘은 모른다.
동생은 세 번 ㉧만에 시험을 통과했다.
- [마] [둘에 셋을 더하면 ㉨다섯이다.
㉩다섯 사람이 한 차에 타기는 어렵다.

- ① [가] : ㉠은 체언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고, ㉡은 격 조사와 결합하고 명사를 대신할 수 있는 대명사이다.
- ② [나] : ㉢은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격 조사와 결합한 의존 명사이고, ㉣은 앞말과 붙여 쓰는 조사이다.
- ③ [다] : ㉤은 서술격 조사와 결합할 수 있는 명사이고, ㉥은 동사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 ④ [라] : ㉦은 앞말과 붙여 쓰는 조사이고, ㉧은 횟수를 나타내는 말 뒤에 쓰이는 의존 명사이다.
- ⑤ [마] : ㉨은 격 조사와 결합할 수 있는 수사이고, ㉩은 뒤의 체언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13. 밑줄 친 ㉠, ㉡이 <보기>에서 설명하는 품사 통용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수완 193쪽 12번]

보기

일반적으로 하나의 단어는 하나의 품사로 분류된다. 그러나 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의 품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이를 품사 통용이라고 하는데, ‘밝다’가 (가)에서는 동사로, (나)에서는 형용사로 쓰이는 것이 이러한 예이다. (가) 벌써 새벽이 밝아 온다. (나) 햇살이 밝아 산책하기에 좋다.

- (가) 벌써 새벽이 **밝아** 온다.
- (나) 햇살이 **밝아** 산책하기에 좋다.

- ① 아직 ㉠**아무**도 오지 않았다.
모든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었다.
- ② 나는 그의 곁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나는 회사 ㉡**가까이**로 이사를 했다.
- ③ 이번 일은 ㉠**모두**에게 책임을 묻겠다.
동생은 겁에 담긴 우유를 ㉡**모두** 쏟았다.
- ④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일이다.
그는 시키지도 않은 일에 ㉡**스스로** 나섰다.
- ⑤ 나는 친구에게 오늘이 ㉠**머칠**인지 물어보았다.
그가 ㉡**머칠**만 시간을 달려며 전화를 해 왔다.



★ 문법성 판단 중에서 ‘호응’

-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어제는 비와 바람이 불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기상 이변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아직 늦지 않았으니 새로 시작하기를 바란다.

내가 이러한 이유는 배가 고프다.

- 목적어 또는 부사어의 생략

그는 피아노와 노래를 불렀다.

우리는 법을 지배하기도 하고 구속받기도 한다.

날씨가 점점 서늘해져 가고 있지만, 청결히 하는 마음은 변치 말아야겠다.

-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

㉠ 부정의 서술어와 쓰여야 하는 경우 : 여간 ~지 않다, 결코/절대로 ~ 아니다, ~해서는 안 된다, 전혀 ~ 없다/아니다, 별로 ~지 않다

㉡ 긍정의 ‘~해야 한다’의 형태의 서술어와 쓰여야 하는 경우 : 모름지기/마땅히/당연히/반드시 ~해야 한다

㉢ 그 외 : 만약/만일 ~더라도, 혹시(아무리) ~르더라도, 비록 ~더라도/~지만/~더라도/~어도

14. <보기>를 바탕으로 주어진 예문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수특 화작언 233쪽 1번]

보기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따라서 문장을 쓸 때에는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잘되어 있는지 주의하여야 한다. 주어와 서술어가 잘 호응하는지, 목적어와 서술어가 잘 호응하는지, 부사어와 서술어가 잘 호응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예문	분석
①	그 일은 여간 어려워서 시간 내에 다 끝낼 수가 없었다.	부사어 ‘여간’과 서술어 ‘어려워서’가 호응하지 않으므로 비문법적이다.
②	내가 이 글에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우리 교육이 창의성을 강조해야 한다.	주어 ‘내가 ... 점은’과 서술어 ‘강조해야 한다’가 호응하므로 문법적이다.
③	지원서 서식은 저희 회사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세요.	목적어 ‘지원서 서식은’과 서술어 ‘내려받으세요’가 호응하므로 문법적이다.
④	사람은 모름지기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부사어 ‘모름지기’와 서술어 ‘알아야 한다’가 호응하므로 문법적이다.
⑤	인류는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적응하기도 하면서 발전해 왔다.	목적어 ‘환경을’과 서술어 ‘적응하기도’가 호응하지 않으므로 비문법적이다.



★ 본용언 vs 보조용언

- 용언 두 개 중에 앞에만 말하고 싶고 뒤가 도와주는 거면 뒤에 있는 건 '보조 용언'
- 용언 두 개 다 말하고 싶고 순서의 차이가 있는 것뿐이라면 뒤에 있는 건 '본용언'

편의상 하는 방법 : 중간에 '-(고)서'를 넣어서 부자연스러우면 보조 용언 / 자연스러우면 본용언

예) 과자를 씹어 **먹었다**. → 과자를 씹어서 먹었다(가능) → '먹었다'는 본용언

실수로 유리창을 깨 **먹었다**. → 실수로 유리창을 깨서 먹었다(불가능) → '먹었다'는 보조 용언

책을 다 읽어 **간다**. → 책을 다 읽어서 간다(불가능) → '간다'는 보조 용언

아들이 아버지를 더 닮아 **가는** 것 같다. → 아들이 아버지를 더 닮아서 가는 것 같다(불가능) → '가는'은 보조 용언

그 책을 읽어 **보았니?** → 그 책을 읽어서 보았니?(불가능) → '보았니'는 보조 용언

우선 말을 들어 **보고** 결정하려고 한다. → 우선 말을 들어서 보고 결정하려고 한다(불가능) → '보고'는 보조 용언

날씨가 더워 **가지고** 공부를 못하겠다. → 날씨가 더워서 가지고 공부를 못하겠다(불가능) → '가지고'는 보조 용언

그 물건을 나눠 **가지는** 기쁨이 크다. → 그 물건을 나눠서 가지는 기쁨이 크다(가능) → '가지는'은 본용언

그는 이 직장에서 30년간 일해 **왔다**. → 그는 이 직장에서 30년간 일해서 왔다(불가능) → '왔다'는 보조 용언

날이 밝아 **온다**. → 날이 밝아서 온다(불가능) → '온다'는 보조 용언

15.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수특 화작언 236쪽 1번]

보기

서술어는 '무엇이 무엇이다/어떠하다/어찌하다'라는 문장에서 '무엇이다, 어떠하다, 어찌하다'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이다. 서술어는 보통 ㉠**단일한 용언**이나 ㉡**체언+이다**로 이루어지지만, 두 개 이상의 용언이 모여 하나의 서술어가 되기도 한다. 두 개 이상의 용언이 모여 하나의 서술어가 되는 예로는 여러 개의 본용언이 결합하는 경우 및 ㉢**본용언과 보조 용언이 결합하여 하나의 서술어**가 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① ㉠: 나는 학교에 **갔었어**.
- ② ㉡: 옷을 **사서** 바로 입었어.
- ③ ㉢: 내가 말한 책이 **이거야**.
- ④ ㉣: 얼른 점심부터 **먹어 봐**.
- ⑤ ㉤: 오늘 하늘이 정말 **높고 푸르네**.



16. <보기>의 ㉠과 ㉡에 들어갈 용언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수특 화작언 240쪽 1번]

보기

민서: 선생님, '운동화를 신고 있다.'에서 '있다'는 보조 용언인데, '운동화를 사 신다.'에서 '신다'는 왜 보조 용언이 아닌가요?

선생님: 보조 용언은 문장에서 홀로 쓰이지 못하고 다른 용언, 즉 본용언 뒤에 붙어서 문법적 의미를 더해 주는 기능을 해요. 그리고 본용언과 보조 용언 사이에는 '-고서, -아서, -어서' 등을 끼워 넣을 수 없어요. '운동화를 사 신다.'라는 문장에서 용언은 '사다'와 '신다'인데, 둘 다 문법적인 의미가 아닌 단어의 원래 의미대로 쓰였고, '운동화를 사서 신다.'라고 할 수 있으니 둘 다 본용언으로 쓰인 경우이지요.

민서: 네, 잘 알겠습니다.

선생님: 본용언과 보조 용언, 본용언과 본용언은 모두 서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구별이 어려울 수 있어요. 좀 전의 설명을 바탕으로 아래 문장에서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모두 찾아 구별해 볼까요?

동생은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엄마에게 도서관 간다고 말해 줘.”라면서 다시 밖으로 달려 나가 버렸다.

본용언	보조 용언
㉠	㉡

- | | |
|---|------------------------------|
| ① | ㉠ 내리다, 놓다, 가다, 말하다, 달리다, 나가다 |
| | ㉡ 주다, 버리다 |
| ② | ㉠ 내리다, 가다, 말하다, 달리다, 나가다 |
| | ㉡ 놓다, 주다, 버리다 |
| ③ | ㉠ 내려놓다, 가다, 말하다, 달리다, 나가다 |
| | ㉡ 주다, 버리다 |
| ④ | ㉠ 내려놓다, 가다, 말하다, 달리다 |
| | ㉡ 주다, 나가다, 버리다 |
| ⑤ | ㉠ 내리다, 가다, 말하다, 달리다 |
| | ㉡ 놓다, 주다, 나가다, 버리다 |



★ 보조 용언의 형태,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

※ 보조 용언의 두 가지 형태

① 위에서 살펴 본 일반적인 형태 - '하다', '버리다', '가다' 등

예) 불이 꺼져 간다 (꺼져간다)

내 힘으로 막아 낸다. (막아낸다)

② 의존명사 + '-하다, -싶다' - '듯하다, 성싶다, 척하다' 등

예) 일이 될 법하다 (될법하다)

비가 올 성싶다 (올성싶다)

잘 아는 척한다 (아는척한다)

-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

보조 용언도 하나의 단어이기에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허나 사람들이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하나의 서술어'로 인식하기 때문에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함.

예) 불이 **꺼져 간다**.(원칙) / 불이 **꺼져간다**.(허용)

내 힘으로 **막아 낸다**.(원칙) / 내 힘으로 **막아낸다**.(허용)

그만 그릇을 **깨뜨려 버렸다**.(원칙) / 그만 그릇을 **깨뜨려버렸다**.(허용)

비가 **올 듯하다**.(원칙) / 비가 **올듯하다**.(허용)

그 일은 **할 만하다**.(원칙) / 그 일은 **할만하다**.(허용)

일이 **될 법하다**.(원칙) / 일이 **될법하다**.(허용)

비가 **올 성싶다**.(원칙) / 비가 **올성싶다**.(허용)

잘 **아는 척한다**.(원칙) / 잘 **아는척한다**.(허용)

※ 절대 붙여 쓸 수 없는 경우

① 둘 사이에 '조사'가 있을 때

예) 책을 **읽어도 보고**(가능) / 책을 **읽어도보고**(불가능)

② 앞말이 합성 동사인 경우

예) 네가 **덤벼들어 보아라**(가능) / 네가 **덤벼들어보아라**(불가능)

③ '특이한 의존 명사'를 형성하지 못한 경우(조사가 끼어 들어서)

예) 비가 **올 듯도** 하다.

※ 본용언 + 보조 용언 + 보조 용언의 경우

앞의 '본용언 + 보조 용언'만 붙여 쓰는 걸 허용함.

예) 다 먹어 **치워 버렸다**(가능) / 다 먹어**치워 버렸다**(가능) / 다 먹어**치워버렸다**(불가능) / 다 먹어 **치워버렸다**(불가능)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글 맞춤법 제47항에서는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라고 규정한다. 다만 이 규정은 ‘붙이 끼쳐 간다.’처럼 본용언과 보조 용언이 어미 ‘-아/ -어’로 연결되는 경우나 ‘비가 올 성싶다.’처럼 ㉞ **본용언의 관형사형이 의존 명사에 ‘하다’나 ‘싶다’가 결합하여 된 보조 용언과 함께 쓰일 때**에만 적용된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제47항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다. 먼저, 연결 어미 ‘-어’에 보조 용언 ‘지다’나 ‘하다’가 오는 경우는 ‘꿈이 이루어지다.’, ‘꽃을 예뻐하다.’처럼 붙여쓰기만을 허용한다. ‘-어지다’는 타동사나 형용사를 자동사로 바꾸고, ‘-어하다’라는 형용사를 타동사로 바꾸는 문법적 특성을 반영한 결과이다.

또한 합성 용언이 본용언으로 쓰일 때에는 보조 용언을 붙여 쓰지 않는다. 붙여쓰기를 허용할 경우에는 ‘덤벼들어보아라’처럼 지나치게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합성 용언의 어간이 두 음절을 넘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가 버렸다’처럼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나가버렸다’처럼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한편 의존 명사에 ‘하다’나 ‘싶다’가 결합한 보조 용언이 쓰일 때, 의존 명사 뒤에 조사가 오면 붙여 쓰지 않는다. 예를 들어 ‘모르는 체를 하다’를 ‘모르는체를 하다’처럼 붙여 쓸 수 없는데, ‘체하다’라는 보조 용언이 쓰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끝으로 둘 이상의 보조 용언이 쓰이는 경우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완성되어 가는 성싶다’와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에는 앞의 보조 용언만을 붙여 씀을 허용한다. 즉 ‘완성 되어 가는 성싶다’와 ‘완성되어가는 성싶다’는 허용하지만 ‘완성되어 가는 성싶다’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17. 밑줄 친 부분이 밑글의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수완 194쪽 14번]

- ① 하마터면 기차를 **놓칠 뻔했다.**
- ② 안 보는 것이 더 **좋을 법했다.**
- ③ 나는 그 사람과 잘 **아는 척했다.**
- ④ 나는 종일 아무것도 **먹질 못했다.**
- ⑤ 하늘에서 많은 눈이 **내릴 듯했다.**

18.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수완 194쪽 15번]

보기

- 오늘은 그가 ㉠ **올 듯도 싶다.**
- 마감 시간이 1시간이나 ㉡ **늦춰졌다.**
- 받은 물건을 ㉢ **집어넣어 두었다.**
- 마감이 닥쳐 원고를 ㉣ **손대 보았다.**
- 그 사실은 ㉤ **기억해 둘 만하다.**

- ① ㉠ : ‘올듯도 싶다’처럼 붙여 쓰면 안 된다.
- ② ㉡ : ‘늦춰 졌다’처럼 띄어 쓰면 안 된다.
- ③ ㉢ : ‘집어넣어두었다’처럼 붙여 쓰면 안 된다.
- ④ ㉣ : ‘손대보았다’처럼 붙여 쓰면 안 된다.
- ⑤ ㉤ : ‘기억해 둘만하다’처럼 붙여 쓰면 안 된다.



19. <보기>의 ㉠의 예로 적절한 것은?[수특 화작언 255쪽 2번]

보기

두 용언이 연결 어미로 연결된 구성은 크게 합성 용언, ㉠ **보조 용언 구문**, 연속 동사 구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합성 용언은 ‘건너뛰다’와 같이 이미 한 단위로 사전에 등재된 단어이므로 사전을 활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보조 용언 구문과 연속 동사 구문은 다른 성분을 두 용언 사이에 끼워 넣을 수 있는지 여부로 구별할 수 있다. 보조 용언 구문의 본용언과 보조 용언은 관계가 비교적 긴밀하여 두 성분 사이에 다른 성분을 끼워 넣을 수 없다. 이에 비해 연속 동사 구문에서는 두 용언 사이에 부가적인 성분을 끼워 넣을 수 있다. 결국 구성 성분들이 얼마나 긴밀하게 결합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보면 합성 용언이 가장 긴밀하고 연속 동사 구문이 가장 긴밀하지 않은 구성이며 보조 용언 구문이 그 중간적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① 나무 밑에서 소나기를 **피했다** 가자.
- ② 누나는 한참 낮잠을 **자고** 일어났다.
- ③ 동생은 독도로 여행을 **떠나** 버렸다.
- ④ 그 영화는 원작을 먼저 **읽고** 보아라.
- ⑤ 오늘 아침에는 사과나 하나 **깍아** 먹자.



★ 직접 명령 vs 간접 명령

직접 명령 : 그냥 일반적인 명령, '-아라 / -어라' 사용

간접 명령 : 글, 구호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명령, 간접 인용에도 쓰임

'-라(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인 말 뒤) / -으라(받침이 있는 말 뒤)' 사용

먹다 - 먹어라 / 먹으라

쓰다 - 써라 / 쓰라

살다 - 살아라 / 살라

되다 - 돼라 / 되라

그는 나에게 “밥을 먹어라.”라고 말했다.

그는 나에게 밥을 먹으라고 말했다.

20. <보기>의 내용을 참고하여 ㉠과 ㉡에 해당하는 문장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수특 화작연 237쪽 2번]

보기

지원이와 정현이는 '명령문'에 대한 발표 수업을 준비하다가 길에서 다음과 같은 현수막을 보고 대화를 나누었다.

○○사는 오염 물질 배출을 당장 그만두라!

지원: 저 문장도 명령문이네!

정현: 맞아. 그런데 오늘 배운 명령문은 '웃어라.', '읽어라.'와 같이 모두 '-아라/-어라'를 사용했잖아. 그러면 '그만두라!'도 '그만 뒤라!'로 써야 하는 것이 아닐까?

지원: 잠깐만, 도서관에서 빌려 온 책에서 찾아볼게. 아, 여기 설명이 있다.

... 명령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문장이다. 그런데, 화자와 청자가 직접 대면한 상황일 때에는 직접 명령형이 사용될 수 있지만, 직접적 대면 상황이 아닌 인쇄 매체나 구호 등 간접적으로 말을 전달할 때에는 간접 명령형이 사용된다. 이는 용언의 어간에 '-(으)라'가 결합되어 실현된다. ...

정현: 그럼 '그만뒤라!'는 ㉠**직접 명령문**이고, '그만두라!'는 ㉡**간접 명령문**이구나.

	㉠	㉡
①	불 좀 꺼 줘라	불 좀 꺼라.
②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아라.
③	훌륭한 교사가 되라.	훌륭한 교사가 되어라.
④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골라라.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고르라.
⑤	밥 좀 먹여라.	밥 좀 먹어라.



★ **진행상과 완료상이 중의성을 띠는 경우**

그가 의자에 앉고 있다.
그가 의자에 앉아 있다.
그가 양복을 입고 있다.

22.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과 같은 중의성을 가지는 예를 만들 수 없는 동사는?[수특 화작언 239쪽 5번]

보기

윤오: 우리 국어 시간 발표 주제는 필로 할까?

경민: 나는 중의성과 관련된 내용이 재미있었어. '-고 있다'가 진행상과 완료상의 의미가 가능한 중의적인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것과 관련된 내용은 어떨까?

윤오: 음, 그런데 오늘 배운 대로라면, '-고 있다'가 모든 동사와 어울려서 중의적인 문장을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 예를 들어 '학교에 가고 있다.'에서는 진행상의 의미로 이해될 수 있지만 완료상의 의미는 드러나지 않으니까.

경민: 그러면 중의적인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동사와 만들지 못하는 동사의 예들을 좀 더 많이 조사해서 발표를 하면 어떨까? '가다'는 중의적인 문장을 만들지 못하지만, '신다'는 중의적인 문장을 만들 수 있잖아. '㉠**신발을 신고 있다.**'는 신는 동작의 진행과 착용 완료 후의 상태의 지속이라는 의미가 모두 가능하니까.

윤오: 그래. 좋아. 나도 그런 동사를 더 찾아볼게.

- ① 들다 : 아래에 있는 것을 위로 올리다.
- ② 매다 : 끈이나 줄 따위의 두 끝을 엮고 잡아당기어 풀어지지 아니하게 마디를 만들다.
- ③ 지다 : 묻었거나 붙어 있던 것이 닦이거나 씻겨 없어지다.
- ④ 짚다 : 바닥이나 벽, 지팡이 따위에 몸을 의지하다.
- ⑤ 하다 : 장신구나 옷 따위를 갖추거나 차려입다.



★ 보어

되다 / 아니다 앞에 쓰여 '이/가'가 붙은 말. 혹은 붙을 수 있는 말.

23. <보기>의 (가)에 들어갈 ㉠~㉥에 대한 예문과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수특 화작연 253쪽 5번]

보기

지원: 선생님, 주어를 표시하는 조사도 '이/가'이고, 보어를 표시하는 조사도 '이/가'인데 어떻게 구별하나요?

선생님: 주어와 보어는 문장을 구성하며 일정한 문법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전체 문장 안에서 해당 부분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주어는 문장에서 동작이나 작용, 성질이나 상태의 주체를 나타낸다. ㉡반면, 보어는 문장에서 주어를 제외하고, 서술어 '되다, 아니다'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서술어와의 관계를 잘 살펴야 해. ㉢그리고 주어와 보어에 항상 조사 '이/가'만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사가 사용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해. 그럼 각각의 예를 살펴볼까?

_____ (가)

유형	예문	설명
① ㉠	저기에 우체국이 있다.	'우체국의 상태'의 주체가 되는 '저기'가 주어이다.
② ㉡	지수만 반장이 되었다.	서술어 '되다'가 사용되었으며, '되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지수만'이 보어이다.
③ ㉢	나는 대학생이 되고 싶다.	서술어에 '되다'가 포함되었으므로 '대학생'이 보어이다.
④ ㉣	동생이 책을 안 읽는다.	서술어에 '아니다'가 포함되었으므로 '책을'이 보어이며, 보어에 '이/가'가 아닌 '을'이 사용된 예이다.
⑤ ㉤	부모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	'께서'는 주어를 표시하는 조사가 아니므로 '부모님'은 주어의 기능을 하지 않는다.



★ 대응되는 능동문이 없는 피동

날씨가 풀렸다.
그가 감기에 걸렸다.
그녀는 슬픔에 싸여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피동은 주어와 주체적인 의지가 아닌 다른 힘에 의하여 당하는 일을 말하며, 피동문은 이러한 의미를 나타내는 피동사가 서술어로 오는 문장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피동문에는 서술어인 피동사, 문장의 주체, 그리고 주체를 움직이게 하는 ‘남의 힘’이 모두 드러나기 마련이다. ㉠ **피동사, 문장의 주체, ‘남의 힘’이 모두 드러난 피동문**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1) ㄱ.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피동문)
- ㄴ.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능동문)

(1ㄱ)은 주어인 ‘도둑’, 피동사인 ‘잡히다’와 도둑이 잡히게 한 ‘경찰’이 모두 분명하게 드러나는 피동문이다. 한편, 문법적으로 피동문을 파악할 때에는 대응되는 능동문(1ㄴ)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피동문에 서의 ‘남의 힘’을 나타내는 부사어가 능동문에서는 주어 가 된다. 또한 피동문의 주어는 능동문에서는 목적어가 되며, 피동사는 피동 접미사가 결합하기 이전의 상태인 동사로 전환된다. 즉, (1ㄱ)은 문법적으로 대응되는 능동문이 존재하는 피동문이다.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부사어로 나타나는데, 이때 부사어가 생략되는지 혹은 실현되지 않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1ㄱ)은 ‘도둑이 잡혔다.’로 쓸 수도 있지만 생략된 부사어를 복원할 수 있다. 그러나 능동문 ‘나는 전화번호를 바꾸었어요.’를 피동문으로 바꿀 경우에는 ‘* 전화번호가 나에게 바뀌었다.’로 나타낼 수 없다. ‘전화번호가 나에게 의해 바뀌었어요.’도 어색하다. 주어인 ‘나’가 전화번호를 바꾼 것이 분명하여도 피동문에서는 ‘나’가 실현되지 않는 ‘전화번호가 바뀌었어요.’가 가장 자연스럽다.

또한 ㉠ **대응되는 능동문이 아예 없는 특수한 피동문**도 존재한다. 능동사 ‘풀다’의 피동사는 ‘풀리다’이므로 능동문 ‘경찰은 의심을 풀었다.’에 대응하는 피동문은, 비록 부사어가 나타나지 않지만 ‘의심이 풀렸다.’로 쓸 수 있다. 그러나 ‘날씨가 풀렸다.’에 대응하는 능동문은 아예 없다. ‘날씨를 푸’는 상황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24. 밑글의 ㉠, ㉡의 예로 적절한 것은?[수특 화작언 262쪽 4번]

- ① ㉠ : 동생의 꿈이 이루어졌다.
- ② ㉠ : 나는 바닥에 미끄러졌다.
- ③ ㉡ : 그는 수상자로 뽑혔다.
- ④ ㉡ :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 ⑤ ㉡ : 산 위에 달이 걸렸다.



★ **선어말어미 ‘-겠-’의 의미**

- 미래의 일이나 추측
- 주체의 의지
- 가능성이나 능력
- 완곡하게 말하는 태도

25. <보기>의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수특 화작언 284쪽 13번]

보기

-겠-

1. 미래의 일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어미.
예) 지금 떠나면 새벽에 **도착하겠구나**.
예) 고향에서는 벌써 추수를 **끝냈겠다**.
2. ㉠
예) 이번 달까지는 목표치를 **달성하겠다**.
예) 동생은 낚시하러 **가겠다고** 한다.
3. ㉡
예) 그런 것은 삼척동자도 **알겠다**.
예) 이걸 혼자 다 먹을 수 **있겠니?**

- ① ㉠ :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는 어미
 ㉡ : 가능성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어미
- ② ㉠ : 완곡하게 말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어미
 ㉡ : 가능성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어미
- ③ ㉠ :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는 어미
 ㉡ : 완곡하게 말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어미
- ④ ㉠ : 완곡하게 말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어미
 ㉡ : 상대방에게 불만스러운 상태임을 나타내는 어미
- ⑤ ㉠ :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는 어미
 ㉡ : 상대방에게 불만스러운 상태임을 나타내는 어미



★ 미지칭 vs 부정칭

너 누구 만나?

답변 ㉠ : 이따 민석이랑 만나기로 했어.

답변 ㉡ : 응, 여자친구 생겼어.

26. <보기>의 ㉠과 동일하게 부정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아닌 것은? [수특 화작언 285쪽 14번]

보기

‘언제, 누구, 무엇, 어디’는 모르는 대상을 알기 위해 설명 의문문에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관정 의문문에 쓰이기도 한다. 그러나 관정 의문문이나 평서문, 명령문 등에 쓰이는 ‘언제, 누구, 무엇, 어디’는 의문사가 아니라 어떤 대상을 특정적으로 꼭 짚어서 가리키지 않는 ‘부정칭 대명사’이다. ‘부정칭’의 ‘부정’은 ‘정해지지 않은 불특정한 것’을 의미한다. 재운이가 바쁘게 걸어가 는 정아에게 ‘어디 가?’라고 물어보고, 정아가 ‘응.’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다면 이때 재운이는 ‘㉠ 어디 가?’를 설명 의문문이 아니라, 관정 의문문으로 사용한 것이 된다.

- ① [A : 누가 왔었어?
B : 응, 아까 왔다 갔어.
- ② [A : 아까 매점에서 선채랑 뭐 먹었어?
B : 빵하고 우유 먹었어.
- ③ [A :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들리지 않아?
B : 노랫소리 같은데.
- ④ [A : 저기 틈새도 한번 찾아보자.
B : 과연 여기로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
- ⑤ [A : 나 언제든 와도 돼?
B : 아니, 4월 이후에 오는 게 좋아.

27.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수완 221쪽 12번]

보기

엄마 : 여보, 우리 아이들이 이번 여름 방학에도 배낭여행을 가겠대요.
 아빠 : 그래? 이번에는 ㉠어디로 간대요?
 엄마 : 경주 쪽으로 가려나 봐요. 간 김에 할아버지 산소에 들른다고.
 아빠 : 대견하네요. ㉡당신께서 무척 아끼던 손주들인데, 아버님도 반가우시겠어.
 엄마 : 방학마다 여행을 다니니 좀 걱정스러워요. 석호는 이제 졸업반인데, ㉢사기가 알아서 한다고만 하고.
 아빠 : 다 큰 성인인데, ㉣저희끼리 ㉠어디든 다닐 수 있지요. 너무 걱정하지 마요. 둘 다 알아서 잘할 거예요.

- ① ㉠ : 정해지지 않은 대상을 가리킬 때 쓰이는 부정칭 대명사이다.
- ② ㉡ : 상대방을 높여 이르는 2인칭 대명사이다.
- ③ ㉢ : 앞에서 이미 나온 사람을 다시 가리킬 때 쓰이는 재귀칭 대명사이다.
- ④ ㉣ : ‘우리’의 겸양 표현으로, 1인칭 대명사이다.
- ⑤ ㉣ : 가리킴을 받는 대상을 알지 못할 때 쓰이는 미지칭 대명사이다.



★ 다른 vs 다른

different의 의미 : 형용사(‘다르다’)의 활용형

other의 의미 : 관형사(‘다른’ 외의 다른 형태 불가)

28. ㉠(사전에 등재된 경우)에 해당하는 예를 <보기>의 ㉠~㉤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수특 화작언 300쪽 13번]

보기

우리말에서는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이 굳어져 관형사로 사전에 등재되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체언을 꾸며 주는 기능을 주로 하고 의미도 서술어로 쓰일 때와는 다르다.

다음 밑줄 친 예 중에서 활용형이 굳어져 사전에 관형사로 등재된 경우를 찾아보자.

- ㉠ 그는 자기 일 외에 **다른** 일에는 관심이 없다.
- ㉡ 왼쪽 다리를 **바른** 무릎에 올려놓고 앉았다.
- ㉢ 쌍둥이들도 성격이 **다른** 경우가 많다.
- ㉣ 그는 생각이 **바른** 사람이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 명사형 어미 ‘-음’ vs ‘-ㅁ’

받침 O : ‘-음’ 붙임.

받침 X 혹은 받침이 ‘ㄹ’ : ‘-ㅁ’ 붙임.

29.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수특 화작언 301쪽 14번]

보기

정수 : 이번 학기 학교 신문에 선생님들 캐리커처를 그리고 아래에 설명을 달아 이름을 맞는 퀴즈를 내면 어떨까?

태림 : 좋아! 3학년 국어 선생님은 ‘머리 길음.’, ‘아낌없이 베품.’ 이렇게 쓰면 되겠지?

정수 : ‘길음’과 ‘베품’이 틀린 것 같아. 둘 다 용언 어간에 명사형 어미 ‘-(으)ㅁ’이 붙은 말이잖아. 받침이 있는 용언 어간 뒤에는 ‘-음’이, 받침이 없는 용언 어간 뒤에는 ‘-ㅁ’이 쓰이지만, ‘ㄹ’받침의 용언 어간 뒤에서는 ‘ㄹ’이 탈락하지 않고 ‘-ㅁ’이 결합하니까 ‘꺾’, ‘베풀’으로 써야 한대더라고. 받침이 ‘ㄷ’일 때에는 어간이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고.

태림 : 그렇구나. 알려 줘서 고마워. 그러면 (㉠)는 명사형 어미 ‘-(으)ㅁ’이 결합한 문장으로 쓰려면 (㉡)처럼 써야 하는구나.

	㉠	㉡
①	밤을 새우다.	밤을 새움.
②	팔고 사다.	팔고 삶.
③	짐을 풀다.	짐을 푸름.
④	바람이 불다.	바람이 불음.
⑤	원리를 깨닫다.	원리를 깨답.



★ 중세 국어의 ‘ㅂ’과 ‘ㅎ’

30. <보기 1>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 2>의 ㉠~㉣ 중 적절한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수특 화작연 302쪽 15번]

보기 1

현대 국어에서 발견되는 몇몇 특이한 말들을 중세 국어에 관한 정보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좁쌀’에 나타나는 ‘ㅂ’은 ‘쌀’의 중세 국어 형태인 ‘쌀’의 어두 자음군 ‘ㅃ’으로부터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수컷’의 ‘ㄱ’은 ‘수’가 중세 국어에서 ‘ㅎ’을 맨 마지막 음으로 가지고 있는 체언이었기 때문에 뒤의 ‘ㄱ’과 축약된 형태가 남아 있는 것이다. 한편, 현대 국어에서 문장의 주어로 쓰이는 ‘내가’는 중세 국어의 대명사 ‘나’에 주격 조사 ‘ㅣ’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형태에 훗날 새로이 등장한 주격 조사 ‘가’가 결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명사 ‘너’를 포함하고 있는 주어 ‘네가’의 형태 역시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보기 2

- ㉠ 현대 국어 ‘햅쌀’의 ‘ㅂ’은 중세 국어의 어두 자음군과 연관되는군.
- ㉡ 현대 국어 ‘수탉’의 ‘ㅌ’은 중세 국어의 어두 자음군과 연관되는군.
- ㉢ 현대 국어 ‘내가’와 ‘네가’는 중세 국어의 주격 조사 ‘ㅣ’와 연관되는군.

-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청유문의 의미**

31.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수완 61쪽 1번]

보기

일반적으로 청유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서술어에 포함된 행동을 함께하기를 요청**하는 문장인데, 이 외에도 ㉡**서술어에 포함된 행동을 청자만 하기를 요청**할 때나 ㉢**화자가 서술어에 포함된 행동을 하기 위해 청자의 협조를 요청**할 때 쓰이기도 한다. 청유문에는 ‘-자’, ‘-자꾸나’, ‘-세’, ‘-(으)비시다’ 등과 같은 청유형 어미가 사용된다.

- ① **할머니:** (함께 산을 오르는 손주에게) 우리 여기서 좀 **쉬자꾸나.**
손주: 좋아요. 10분만 쉬었다 가요.
- ② **엄마:** (초등학생인 아들에게) 이제 그만 놀고 너도 숙제 좀 **하자.**
아들: 엄마, 조금만 더 놀다가 할게요.
- ③ **선생님:** (변답을 하면서 학생에게) 자네의 진로 계획을 좀 **듣세.**
학생: 저는 국문학과에 가서 문학을 전공하고 싶어요.
- ④ **승객 A:**(지하철에서 문을 가로막은 다른 승객에게) 저 좀 **내립시다.**
승객 B: (한쪽으로 비켜서면서) 네. 어서 내리세요.
- ⑤ **할아버지:** (신문을 찾으면서 손주에게) 오늘 신문 좀 **보자.**
손주: (신문을 찾아다 드리면서) 신문 여기 있어요.



★ 중세 국어 1대1 대응

32. <보기 1>의 ㉠과 ㉡을 모두 찾아볼 수 있는 예만을 <보기 2>에서 골라 묶은 것은?[수완 62쪽 2번]

보기 1

중세 국어의 조사는 앞말이 지니는 소리의 특성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기도 한다. 또한 형태가 같은 조사라도 문장에서 수행하는 기능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문장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잘 따져 봐야 한다.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따질 때에는 앞에 오는 체언의 의미상 특징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와 ‘의’는 관형격 조사 또는 부사격 조사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앞말의 끝에 오는 모음이 양성인 경우에는 ‘이’, 음성인 경우에는 ‘의’가 쓰인다. 관형격 조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앞말이 존칭이 아닌 평칭의 유정 체언이어야 한다. 그리고 ㉡부사격 조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앞에 신체, 방위, 처소, 시간 등을 뜻하는 무정 체언이 와야 한다.

보기 2

- ㉠ 치운 뒤편에서 **바닥** 우뚝다 (추운 산에서 밤에 우는구나)
- ㉡ **낙담** 뜯 거스디 아니흐거든 (남의 뜻 거스르지 아니하거든)
- ㉢ 千歲(천세) **우희** 미리 定(정)흐샨 (천 년 전에 미리 정하신)
- ㉣ 父母(부모) | **아들의** 마를 드르샤 (부모가 아들의 말을 들으시어)
- ㉤ 世尊(세존)이 多子塔(다자탑) **앞쪽** 가시어 (세존이 다자탑 앞에 가시어)

- ① a, e
- ② b, d
- ③ a, c, e
- ④ a, d, e
- ⑤ b, c, d



★ 중세 국어, 받침에서의 ‘ㅅ’ 발음

33.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수완 63쪽 3번]

보기 1

- 15세기 국어의 특징
 - 종성에서 ‘ㅅ’의 발음이 실현되었다.
 - ‘ㅅ’, ‘병’, ‘오’ 등의 음운을 표기했다.
 - 연철 표기(이어 적기)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 초성에 오는 ‘ㅁ’은 ‘ㅂ’과 ‘ㄷ’이 모두 발음되었다.
 - 주격 조사가 음운론적 환경에 따라 ‘이’, ‘ㅣ’, ‘ㅇ’의 형태로 실현되었다.

보기 2

나랏말싸미 中 國 國 語 에 달 아 文 文 字 字 宗 宗 와 와 서 르 ㉠ **스뫼디** 아 니 흘 썩 이 런 전 츠 로 어 린 白 晷 姓 性 이 니 르 고 겨 흙 배 이 서 도 므 춤 내 제 ㉡ **쁘들** 시 러 퍼 디 문 흥 ㉢ **노미** 하 니 라 내 이 를 爲 爲 윙 하 야 어 옛 비 너 겨 새 로 스 물 여 들 字 字 宗 宗 를 땡 ㄴ 노 니 사 람 마 다 히 여 ㉣ **수비** 니 겨 날 로 뿌 메 便 便 한 키 흥 고 겨 흥 ㉤ **싸르미니라**

- 『훈민정음(訓民正音)』, 세조(世祖) 5년(1459년)

[현대어 풀이]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중국) 문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위하여 가엾게 여겨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니,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 ① ㉠의 ‘스뫼디’에서 ‘뫼’은 ‘물’과 동일하게 발음되었겠군.
- ② ㉡의 ‘쁘들’을 발음할 때 첫음절의 초성은 두 개의 자음이 모두 발음되었겠군.
- ③ ㉢의 ‘노미’에는 주격 조사 ‘이’가 쓰였군.
- ④ ㉣의 ‘수비’에는 오늘날에는 쓰이지 않는 음운을 표기하고 있군.
- ⑤ ㉤의 ‘싸르미니라’는 연철 표기 방식의 예로 볼 수 있겠군.



★ ‘ㄴ’, ‘ㄷ’의 발음

‘ㄷ’의 발음

- 예, 례 : 무조건 [ㄷ]
- 그 외 : [ㄷ]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됨)

‘ㄴ’의 발음

- 첫음절 : 무조건 [ㄴ]
- 예) 의사[의사]
- 첫음절 아닌 경우 : []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됨)
- 예) 문의[무늬/무니] 사항
- 자음을 첫 음절로 가진 경우 : 무 조 건 []로 발음
- 예) 무늬[무니], 하늬바람[하니바람]
- 조사인 경우 : [ㄷ]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됨)
- 예) 너의[너의/너에]

34. <보기>를 참고할 때, ㉠~㉤ 중 잘못된 발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수완 248쪽 11번]

보기

표준 발음법 제5항 ‘ㅈ ㅊ ㅋ ㆁ ㄷ ㄱ ㅈ ㆁ’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 다만 1.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저, 쩌, 처’는 [저, 쩌, 처]로 발음한다.
- 다만 2. ‘예, 례’ 이외의 ‘ㄷ’는 [ㄷ]로도 발음한다.
- 다만 3.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는 []로 발음한다.
- 다만 4.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로, 조사 ‘의’는 [ㄷ]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 ㉠ ‘다쳐’를 [다치]로 발음했다.
- ㉡ ‘지혜’를 [지혜]로 발음했다.
- ㉢ ‘차례’를 [차레]로 발음했다.
- ㉣ ‘희망’을 [희망]으로 발음했다.
- ㉤ ‘의견’을 [이견]으로 발음했다.
- ㉥ ‘동생의’를 [동생에]로 발음했다.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 ⑤ ㉡, ㉣, ㉥



★ '우리'의 범위

- 청자 포함 / 미포함

35. <보기>의 ㉠에 해당하는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수완 249쪽 13번]

보기

- 탐구 목표 : 1인칭 복수 대명사 '우리'의 사용상 특징을 파악 한다.
- 탐구 자료 : '우리'가 포함된 문장을 수집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 탐구 결과 : '우리'에 청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청자가 포함되는 경우	청자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	

- 점검 방법 : 문장을 높임 표현으로 바꿀 때 '우리'를 겸양 표현 '저희'로 바꾸어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때 청자가 포함되는 '우리'는 '저희'로 바꾸어 쓰기 어렵다. 화자가 청자까지를 함께 낮출 수는 없기 때문이다.

- ① 석호야, 우리와 함께 놀이공원에 가지 않을래?
- ② 선배님, 우리 때문에 선배님들이 고생을 하시네요.
- ③ 선생님, 우리의 생각은 선생님과 조금 다릅니다.
- ④ 철호야, 우리 이번 방학에 같이 도서관에 다닐래?
- ⑤ 애들아, 우리가 너희한테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니?



★ **통사적 합성어 vs 비통사적 합성어(현대와 중세)**

- **비통사적 합성어의 양상**

- ① 어간 + 체언
- ② 어간 + 어간
- ③ 부사 혹은 비자립성 어근 + 체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단어를 형성하는 다양한 방식 가운데 합성은 가장 보편적인 방식으로, 어휘적 의미를 강하게 띠는 요소들이 결합하는 경우이다. 이때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하는 방식이 우리말 문장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통사 구성 방식에 부합하느냐에 따라 합성어는 다시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용언의 관형사형(용언의 어간+관형사형 전성 어미) + 명사’로 구성된 ‘젊은 남자’가 일반적인 통사 구성 방식임을 고려하면 ‘젊은이’는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반면 용언 어간에 명사가 직접 결합한 ‘접칼’은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일반적인 우리말 문장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통사 구성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보슬비’ 같은 경우에도 홀로 쓰일 수 없는 어근인 ‘보슬’에 명사가 결합하기 때문에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한편 용언의 경우에는 ‘용언의 연결형(용언의 어간+ 연결 어미) + 용언의 어간’으로 구성된 ‘입고 가다’가 일반적인 우리말의 통사 구성 방식임을 고려하면 ‘파고들다’는 통사적 합성어이다. 반면 연결 어미가 없이 용언 어간끼리 직접 결합하는 ‘높푸르다’는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이러한 구분은 중세 국어의 합성어에도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대 국어 ‘뛰놀다’와 중세 국어 ‘뛰놀다’는 둘 다 연결 어미가 없이 용언의 어간끼리 직접 결합하는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다만 ‘도랏다(좋고 싫다), 덕먹다(찍어 먹다)’ 같은 비통사적 합성어는 현대 국어에서는 더 이상 합성어로 쓰이지 않고 구 구성을 보인다. 한편 ㉠중세 국어에서는 비통사적 합성어의 구성으로 쓰였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통사적 합성어의 구성으로 쓰이는 경우도 존재한다.

36. **윗글을 통해 추론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수완 222쪽 14번]

- ① ‘새 신발’과 같이 관형사와 명사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어느새’는 통사적 합성어이다.
- ② ‘꽃 피다’와 같이 명사와 용언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힘들다’는 통사적 합성어이다.
- ③ ‘멀리 가다’와 같이 부사와 용언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덜하다’는 통사적 합성어이다.
- ④ ‘빠른 동물’과 같이 용언의 관형사형과 명사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뜯소문’은 통사적 합성어이다.
- ⑤ ‘갈아 먹다’와 같이 용언의 연결형과 용언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보살피다’는 통사적 합성어이다.

37. **윗글의 ㉠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수완 222쪽 15번]

중세 국어 자료	현대어 풀이
먹고 ㉠술지니	먹고 살찌니
다시 ㉡도라오디 아니호려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려
누른남기 ㉢니러셔니이다	누운 나무가 일어섰습니다
것바시 드외야 ㉣빌머거 사니 다가	거지가 되어 빌어먹으며 살아가 다가
이 양으로 세 번 ㉤오르느리 샐	이 모습으로 세 번 오르내리시 어

- ① ㉠술지니
- ② ㉡도라오디
- ③ ㉢니러셔니이다
- ④ ㉣빌머거
- ⑤ ㉤오르느리샐



[정답 및 해설]

- 1) ㉠ : 읍조리다 ㉡ : 읊조리다 ㉢ : 무티다 ㉣ : 받니랑 ㉤ : 자음군 단순화 ㉥ : 구개음화 ㉦ : 비음화
- 2) ㉠ (1) b, ps, k (2) ll, l (3) kh [로마자 표기법의 주요 내용] (1) 'ㅂ'은 모음 앞에서는 'b'로 적고 자음 앞에서는 'p'로 적는다. 'ㅅ'은 모음 앞에서는 's'로 적는다. 이 예에서는 된소리가 되어 'ㅆ'으로 발음되지만 표기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ㄱ'은 어말에서는 'k'로 적는다. (2) 'ㄹ' 소리는 'll'로 적는다. 어말에서 'ㄹ'은 'l'로 적는다. (3) 체언에서 'ㄱ' 뒤에 'ㅎ'이 나오면 'ㅎ'을 밝혀 'h'로 적는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앞의 'ㄱ'은 그대로 남게 되는데, 그 'ㄱ'은 자음 앞에 있으므로 'k'로 적는다.
- 3) ㉡ [로마자 표기법의 주요 내용] ㉠ 'ㄴ'이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나므로 표기에 반영해야 한다. ㉢ 'ㄱ'이 'ㄷ' 앞에서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므로 표기에 반영해야 한다. ㉣ 'ㅅ'이 'ㅆ'으로 바뀌는 경음화가 일어나지만, 경음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 'ㅂ'과 'ㅎ'이 'ㅍ'으로 축약되는 격음화가 일어나지만, 체언이므로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 'ㄴ'이 첨가되고 'ㄱ'이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므로 표기에 반영해야 한다.
- 4) ㉣ ㉠ '톱(top)'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이', '을' 등이 오면 [토비], [토틀]로 발음되는 점을 반영하여 '톱'이라고 적은 것이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 '숍(shop)'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 [습]으로 발음되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 ㉡ '캣(cat)'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 [캣]으로 발음되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 ㉢ '킥(kick)'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 [킥]으로 발음되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 ㉣ '로봇(robot)'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 [로봏]으로 발음되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 5) ㉠ (1) 자기가 오늘 우체국에 가겠다고, ㉡ 제, 자기 ㉢ 내일 오늘 ㉣ 같게요, 가겠다고 (2) 거기로 구급차를 불러 달라고 ㉡ 여기, 거기 ㉢ 줘, 달라고 [인용절을 가진 안은문장](1) 직접 인용절에서의 '제(저)'는 간접 인용절에서는 재귀 대명사 '자기'로 바뀌었다. 발화한 것이 어제이므로 시간 표현은 '내일'이 '오늘'로 바뀌었다. '같게요'는 어간 '가'에 선어말 어미 '-겠-', 종결 어미 '-다'가 붙고 거기에 간접 인용의 '고'가 결합하여 '가겠다고'로 바뀌었다. (2) 직접 인용절에서의 '여기'는 간접 인용절에서는 '거기'로 바뀌었다. '할머니가 지금은 그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불러 줘'는 '불러 달라고'로 바뀌었다. '라고'는 명령형 '-(으)라'에 '고'가 결합한 것이다.
- 6) ㉠ (1) ㉡: ㉢, ㉣ ㉤: 둘 다 담화(발화) 장면에서 있는 대상을 가리킴. (2) ㉡: ㉢, ㉣ ㉤: 둘 다 담화의 앞에서 언급한 '방과 후 활동에서 이름 삼행시로 재미있게 친구를 칭찬해 주기를 가리킴. [통일성, 응집성] (1) ㉢과 ㉣은 담화상 앞뒤의 어떤 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발화 현장에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지시 표현이다. (2) ㉢과 ㉣은 둘 다 '방과 후 활동에서 이름 삼행시로 재미있게 친구를 칭찬해 주기를 가리킨다. 이것이 담화상의 언어로 표현된 것이므로 대응 표현이다.
- 7) ㉡ [국어의 자음 체계] 'ㄱ'이 'ㄴ' 앞에서 'ㅇ'으로 바뀌는 변동이 일어났다. 'ㄱ'이 'ㅇ'으로 바뀔 때, 조음 위치는 '연구개음'으로 동일하며 조음 방법은 '파열음'에서 '비음'으로 바뀐다. ㉢ ㉠ 'ㄷ'이 'ㄴ' 앞에서 'ㄷ'으로 바뀌는 변동이 일어났다. 'ㄷ'이 'ㄴ'으로 바뀔 때, 조음 위치는 '치조음'에서 '경구개음'으로 바뀌며 조음 방법은 '파열음'에서 '파찰음'으로 바뀐다. ㉣ ㉡ 'ㄹ'이 받침 'ㅇ' 뒤에서 'ㄴ'으로 바뀌는 변동이 일어났다. 'ㄹ'이 'ㄴ'으로 바뀔 때, 조음 위치는 '치조음'으로 동일하며 조음 방법은 '유음'에서 '비음'으로 바뀐다. ㉤ ㉢ 'ㅂ'이 'ㄷ' 앞에서 'ㄷ'으로 바뀌는 변동이 일어났다. 'ㅂ'이 'ㄷ'으로 바뀔 때, 조음 위치는 '양순음'으로 동일하며 조음 방법은 '파열음'에서 '비음'으로 바뀐다. ㉤ ㉣ 'ㄴ'이 'ㄹ' 뒤에서 'ㄹ'로 바뀌는 변동이 일어났다. 'ㄴ'이 'ㄹ'로 바뀔 때, 조음 위치는 '치조음'으로 동일하며 조음 방법은 '비음'에서 '유음'으로 바뀐다.
- 8) ㉡ [국어의 음운 변동] ㉡ 어간 'ㅁ'에 어미 '-고'가 결합할 때 격음화가 일어났다('ㅎ' + 'ㄱ' → 'ㅋ'). 따라서 ㉢의 예이다. ㉢ ㉠ 어근 'ㅁ'의 품사가 동사이며 접미사 '-하-'와 결합할 때 격음화가 일어났다('ㅁ' + 'ㅎ' → 'ㅁ'). 따라서 ㉣의 예이다. ㉣ 어간 'ㅁ'에 어미 '-느'가 결합하여 격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때는 'ㅎ'이 'ㄷ'으로 바뀐 후 'ㄴ'이 된다. 따라서 ㉣의 예이다. ㉤ 어간 'ㅎ'에 어미 '-던'이 결합할 때 격음화가 일어났다('ㅎ' + 'ㄷ' → 'ㅌ'). 따라서 ㉢의 예이다. ㉤ 어근 'ㅁ'의 품사가 형용사이며 접미사 '-하-'와 결합할 때 격음화가 일어났다('ㅁ' + 'ㅎ' → 'ㅁ'). 따라서 ㉣의 예이다.
- 9) ㉢ [국어의 음운 변동] ㉢ ㉢은 'ㅂ'의 'ㄹ'이 'ㄴ' 앞에서 탈락하였으므로 적절하다. ㉣은 'ㄹ' 뒤의 'ㄴ'이 'ㄹ'로 바뀐 것이므로 적절하다. ㉤ ㉠ ㉢: 음절 말에서 'ㄹ'의 'ㄹ'이 탈락한 것은 자음군 단순화로 인한 현상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ㄹ' 뒤의 'ㄴ'이 'ㄹ'로 바뀌었으므로 적절하다. ㉡ ㉢: '울'의 'ㄹ'이 'ㄴ' 앞에서 탈락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ㄹ' 앞의 'ㄴ'이 'ㄹ'로 바뀐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 '살'의 'ㄹ'이 'ㄴ' 앞에서 탈락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ㄹ' 앞의 'ㄴ'이 'ㄹ'로 바뀐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 음절 말에서 'ㅎ'의 'ㄹ'이 탈락한 것은 자음군 단순화로 인한 현상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ㄹ' 앞의 'ㄴ'이 'ㄹ'로 바뀐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10) ㉢ [국어의 음운 변동] ㉢ ㉢은 'ㅂ'의 'ㄹ'이 'ㄴ' 앞에서 탈락하였으므로 적절하다. ㉣은 'ㄹ' 뒤의 'ㄴ'이 'ㄹ'로 바뀐 것이므로 적절하다. ㉤ ㉠ ㉢: 음절 말에서 'ㄹ'의 'ㄹ'이 탈락한 것은 자음군 단순화로 인한 현상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ㄹ' 뒤의 'ㄴ'이 'ㄹ'로 바뀌었으므로 적절하다. ㉡ ㉢: '울'의 'ㄹ'이 'ㄴ' 앞에서 탈락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ㄹ' 앞의 'ㄴ'이 'ㄹ'로 바뀐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 '살'의 'ㄹ'이 'ㄴ' 앞에서 탈락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ㄹ' 앞의 'ㄴ'이 'ㄹ'로 바뀐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 음절 말에서 'ㅎ'의 'ㄹ'이 탈락한 것은 자음군 단순화로 인한 현상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ㄹ' 앞의 'ㄴ'이 'ㄹ'로 바뀐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11) ㉠ [단어의 구성 요소] ㉢ ㉢ '깨끗', '-하-', '-게'는 모두 형태소이다. 또한 어근 '깨끗'에 접미사 '-하-'가 결합된 '깨끗하다'는 하나의 단어이다. '깨끗하'는 다양한 어미와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데, 각각의 활용형들 역시 하나의 단어이다. 따라서 '깨끗하'에 어미 '-게'가 결합한 활용형 '깨끗하게' 역시 하나의 단어이다.
- 12) ㉢ [품사의 특성] ㉢ ㉢ '언제였더라'는 '언제'에 서술격 조사 '이'가 결합한 후에 선어말 어미 '-었-', '-더-'와 종결 어미 '-라'가 결합한 형태이다. 여기서 ㉢ '언제'는 '잘 모르는 때'를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로 명사가 아니다. ㉣ '언제'는 '만남시다'를 수식하는 부사이다. ㉤ ㉠ ㉢ '그'는 '마음'을 수



식하는 지시 관형사이고, ㉠ '그'는 격 조사와 결합한 대명사이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 '뿐'은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격 조사와 결합하는 의존 명사이고, ㉢ '뿐'은 보조사이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 '만'은 보조사이고, ㉤ '만'은 '앞말이 가리키는 횟수를 끝으로'라는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 '다섯'은 조사와 결합할 수 있는 수사이고, ㉦ '다섯'은 명사를 수식하는 수 관형사이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13) ㉡ ㉤ [품사의 분류 기준] ㉤ ㉠과 ㉢의 '며칠'은 모두 명사로 쓰이고 있다. ㉡ ㉠ ㉢의 '아무'는 대명사로, ㉣의 '아무'는 관형사로 쓰이고 있다. ㉡ ㉢의 '가까이'는 부사로, ㉣의 '가까이'는 명사로 쓰이고 있다. ㉢ ㉢의 '모두'는 명사로, ㉣의 '모두'는 부사로 쓰이고 있다. ㉣ ㉢의 '스스로'는 명사로, ㉣의 '스스로'는 부사로 쓰이고 있다.

14) ㉡ ㉡ [문장 성분] '강조해야 한다'를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로 고쳐야 주어 '내가 ... 점'은 과 호응하게 된다. 따라서 이 예문은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 ㉠ '여간'은 일반적으로 부정어 '안, 못'이나 '않다, 못하다' 등의 말과 호응하는 말이므로, '여간 어려워'를 '여간 어렵지 않아서'와 같이 써야 문법적이게 된다. ㉢ '지원서 서식'은 서술어 '내려받다'의 목적어인데, 문장 어디에 있던 간에 역시 목적어로서 '내려받으세요'와 잘 호응한다. ㉣ '모름지기'는 일반적으로 '-어야 한다'와 같은 의무나 당위를 나타내는 표현과 호응한다. 그러므로 예문의 서술어 '알아야 한다'와 잘 호응한다. ㉤ 목적어 '환경을'은 '변화시키기도 하고'와는 잘 호응하지만 '적용하기도 하면서'와는 호응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비문법적이다. '적용하기도 하면서' 앞에 부사어 '환경에'를 써야 부사어와 서술어가 호응하게 된다.

15) ㉡ ㉤ [문장 성분별 특성-서술어] ㉤ '높고 푸르다'는 '높다'와 '푸르다'가 모두 본용언으로, 본용언과 보조 용언이 결합한 서술어가 아니다. ㉡ ㉠ '갓'은 단일한 용언인 '가다'에 선어말 어미와 종결 어미가 결합한 형태이다. ㉡ '사서'는 단일한 용언인 '사다'에 연결 어미가 결합한 형태이다. ㉢ '이거야'는 '이것이'의 구어적 표현으로 체인 '이것'과 '이다'의 활용형이 결합한 서술어이다. ㉣ '먹어 봐'는 본용언 '먹다'의 활용형 '먹어'에 보조 용언 '보다'의 활용형이 결합한 서술어이다.

16) ㉡ ㉢ [용언] 이 문장에서 서술어는 '내려놓다, 가다, 말해 주다, 달리다, 나가 버리다'이다. '내려놓다'는 한 단어로 붙여 쓰며, 그 자체로 하나의 용언(본용언)이다. 또한 '가다, 말하다, 달리다, 나가다'도 문장에서 홀로 원래의 의미로 쓰일 수 있는 본용언이다. *말해서 주다, *나가서 버렸다'라고 할 수 없고, *도서관 간다고 줘, *동생이 버렸다'처럼 해당 문장에서 단독으로 쓰일 수 없으므로 '주다, 버리다'는 보조 용언이다. ㉡ ㉠ '내려놓다'는 하나의 용언이다. ㉡ '내려놓다'는 한 단어로, 이때 '놓다'는 보조 용언이 아니다. ㉣ '달려 나가 버렸다'에서 '나가다'는 '밖으로 이동하다'의 의미로 홀로 쓰일 수 있는 본용언이다. ㉤ '내려놓다'는 한 단어이므로 이때 '놓다'는 보조 용언이 아니다. 또한 '달려 나가 버렸다'에서 '나가다'는 '밖으로 이동하다'의 의미로 홀로 쓰일 수 있는 본용언이다.

17) ㉡ ㉣ [한글 맞춤법의 주요 내용] ㉣ '먹질'은 '먹자'에 조사 '를'이 결합한 형태가 줄어든 것으로, 관형사형이 아니다. 또한 '못하다'는 부사 '못'에 '하다'가 결합한 보조 용언이다. ㉡ ㉠ '놓칠'은 본용언 '놓치다'의 관형사형이다. 또한 '뻔하다'는 의존 명사 '뻔'에 '하다'가 결합하여 된 보조 용언이다. ㉡ '좋을'은 본용언 '좋다'의 관형사형이다. 또한 '법하다'는 의존 명사 '법'에 '하다'가 결합하여 된 보조 용언이다. ㉢ '아는'은 본용언 '알다'의 관형사형이다. 또한 '척하다'는 의존 명사 '척'에 '하다'가 결합하여 된 보조 용언이다. ㉤ '내랄'은 본용언 '내리다'의 관형사형이다. 또한 '똥하다'는 의존 명사 '똥'에 '하다'가 결합하여 된 보조 용언이다.

18) ㉡ ㉣ [한글 맞춤법의 주요 내용] ㉣ 3문단에서는 합성 용언이 본용언으로 쓰일 때에는 보조 용언을 붙여 쓰지 않으나 합성 용언의 어간이 두 음절을 넘지 않을 때에는 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 '손대 보았다'의 '손대'가 이에 해당하며, 따라서 '손대 보았다'처럼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손대보았다'처럼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 ㉠ 4문단의 내용을 참조할 때 옳은 설명이다. 즉 의존 명사 '똥' 뒤에 조사 '도'가 오기 때문에 '올듯도 싶다'처럼 붙여 쓰면 안 된다. ㉡ 2문단의 내용을 참조할 때 옳은 설명이다. 즉 연결 어미 '-아'에 보조 용언 '지다'가 오기 때문에 '늦춰졌다'처럼 붙여쓰기만을 허용한다. ㉢ 3문단의 내용을 참조할 때 옳은 설명이다. 즉 '집어넣-'이라는 어간이 '두 음절이 넘는 합성 용언이 본용언으로 쓰인 경우'이기 때문에 '집어넣어두었다'처럼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붙여 쓰면 안 된다. ㉤ 5문단의 내용을 참조할 때 옳은 설명이다. 즉 보조 용언 '두다'와 보조 용언 '만하다'가 함께 쓰인 경우이기 때문에 앞의 보조 용언 '두다'를 본용언에 붙여 쓰는 것만 허용한다. '기억해 둘 만하다'와 '기억해 둘 만하다'는 허용하지만, '기억해 둘만 하다'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19) ㉡ ㉢ [용언] '떠나 버렸다'는 '떠나다'와 '버리다'가 결합된 구성으로 *떠나서 버리다' 혹은 *떠나 그리고 버리다'가 불가능하므로 두 동사 사이에 다른 성분을 끼워 넣을 수 없는 보조 용언 구문이다. ㉡ ㉠ '피했다'가 '가'는 '피하다'와 '가다'가 결합된 구성으로 '피했다'가 '가' 혹은 '피했다' 천천히 가'가 가능하므로 두 동사 사이에 다른 성분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연속 동사 구문이다. ㉡ '자고 일어났다'는 '자다'와 '일어나다'가 결합된 구성으로 '자 고서 일어났다' 혹은 '자다 일찍 일어났다'가 가능하므로 두 동사 사이에 다른 성분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연속 동사 구문이다. ㉣ '읽고 보아라'는 '읽다'와 '보다'가 결합된 구성으로 '읽고서 보아라' 혹은 '읽고 나중에 보아라'가 가능하므로 두 동사 사이에 다른 성분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연속 동사 구문이다. ㉤ '깎아 먹자'는 '깎다'와 '먹다'가 결합된 구성으로 '깎아서 먹자' 혹은 '깎아 맛있게 먹자'가 가능하므로 두 동사 사이에 다른 성분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연속 동사 구문이다.

20) ㉡ ㉣ [문장 종결 표현의 종류] ㉣ '골라라'는 '고르다'에 '-아라'가 결합한 형태이고, '고르라'는 '-라'가 결합한 형태이다('골라라'는 '르' 불규칙 동사로 활용 시 '고르-'가 '골르-'로 바뀐다). 또한 '골라라'는 화자가 청자에게 직접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직접 명령형이지만, '고르라'는 직접적 대면 상황이 아닌 인쇄 매체 등에서 사용되는 간접 명령형이다. ㉡ ㉠ '꺼 줘라'는 '꺼 주다'의 '주-'에 '-아라'가 결합한 형태로 직접 명령형이며, '꺼라도' '고다'의 '고-'에 '-아라'가 결합한 직접 명령형이다. ㉡ '알라'는 '알다'의 '알-'에 '-라'가 결합한 간접 명령형이고, '알아라'는 '알-'에 '-아라'가 결합한 직접 명령형이다. ㉢ '되라'는 '되다'의 '되-'에 '-라'가 결합한 간접 명령형이라고, '되어라'는 '되-'에 '-아라'가 결합한 직접 명령형이다. ㉤ '먹여라'는 '먹이다'의 '먹-'에 '-아라'가 결합한 직접 명령형이고, '먹여라'는 '먹다'의 '먹-'에 '-아라'가 결합한 직접 명령형이다.

21) ㉡ ㉤ [문장 종결 표현을 묻는 유형] ㉣은 청유형 문장으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진학 설명회에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는 당부를 하고 있다. 이것은 청유문이 서술어에 포함된 행동을 청하지만 하기를 요청하는 표현으로 명령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데 이 말은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직접 만난 자리에서 쓴 말이므로, 간접 명령문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명령문의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 ㉠ ㉢에서 행동을 금지하는 명령의 경우



에 동사 '말다'를 쓰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먹지 마.', '웃지 마.'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말다' 대신 '않다'를 사용하면 어색한 표현이 된다. ② ㉠의 '-해라'는 해라체, ㉡의 '-어요'는 해요체, ㉢의 '-으십시오'는 하십시오체의 어미로, 화자와 청자의 관계나 친밀도에 따라 맥락에 맞는 명령형 어미를 사용해야 한다. ③ ㉠은 직접 명령문이고, ㉡는 간접 명령문이다. 즉 '-하다'의 형태인 동사의 경우, 화자가 청자를 대면한 경우에는 '-해라'로 대면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라'로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④ ㉢에서 '예뻐라'를 사용하여 명령문을 만들면 어색한 표현이 되는 것은 '예쁘다'가 형용사이기 때문이다.

22) ㉠ ㉢ [동작상-진행상,동작상-완료상] ㉢ '지다는 '얼룩이' 지고 있다.'가 완료상을 나타낼 수 없다. ㉠ ㉠ '들다는 '짐을 들고 있다.'에서 짐을 드는 순간의 동작(진행상)과 짐을 드는 동작이 완료된 후, 그 결과 상태가 지속됨(완료상)을 나타낼 수 있다. ㉡ '매다는 '넥타이를 매고 있다.'에서 넥타이를 매는 동작(진행상)과 넥타이를 매는 것이 완료된 후, 그 결과 상태가 지속됨(완료상)을 나타낼 수 있다. ㉣ '짚다는 '지팡이를 짚고 있다.'에서 지팡이를 짚는 순간의 동작(진행상)과 지팡이를 짚는 동작이 완료된 후, 그 결과 상태가 지속됨(완료상)을 나타낼 수 있다. ㉤ '하다는 '귀걸이를 하고 있다.'에서 귀걸이를 착용하는 동작(진행상)과 귀걸이를 하는 것이 완료된 후, 그 결과 상태가 지속됨(완료상)을 나타낼 수 있다.

23) ㉠ ㉢ [보어는 주어]를 제외하고 '되다와 같은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으로 이 문장에서는 서술어 '되고 싶다'가 주어 '나는' 외에 필수적으로 '대학생이'를 요구하며, '대학생이'가 생략되면 문장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대학생이'는 보어이다. ㉠ ㉠ 이 문장의 서술어는 '있다'이며 이때 주어는 '우체국'이다. '우체국이 저기에 있다.'로 바꾸어도 의미가 같다. ㉡ 이 문장에서 '반장이 되었다'의 주어는 '지수만'이며, '되었다'의 보어는 '반장'으로 분석할 수 있다. ㉣ 이 문장의 서술어는 '읽는다'로, '책'은 보어가 아닌 목적어이다. ㉤ 이 문장에서 '깨서'는 주어를 높이는 조사이다. '부모님께'가 문장의 주어이다.

24) ㉠ ㉢ [피동 표현] '달이 걸렸다.'는 대응되는 능동문 '달을 걸었다.'를 아예 설정할 수 없으므로 ㉠의 적절한 예이다. ㉠ ㉠ 이 문장은 피동문이지만, 주체를 움직이게 하는 '남의 힘'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 '미끄러지다'는 피동사가 아니며, 주체를 움직이게 하는 '남의 힘'도 드러나지 않는다. ㉢ '(누군가가) 그를 수상자로 뽑았다.'를 대응하는 능동문으로 설정할 수 있다. ㉣ '(누군가가) 새로운 사실을 밝혔다.'를 대응하는 능동문으로 설정할 수 있다.

25) ㉠ ㉠ [국어사전 정보] ㉠ '이번 달까지 목표를 달성하겠다.'나 '동생은 낚시하러 가겠다고 한다.'에서 '-겠-'은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는 어미'로 쓰였고, '그런 것은 삼척동자도 알겠다.'나 '이걸 혼자 다 먹을 수 있겠나?'에서 '-겠-'은 '가능성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어미'로 쓰였다. ㉡ ㉡, ㉢, ㉣, ㉤ '완곡하게 말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어미'로 쓰인 예는 '내가 말해도 되겠나?'를 들 수 있고, '상대에게 불만스러운 상태임을 나타내는 어미'로 쓰인 예로는 '살다 살다 별소리를 다 듣겠네.'를 들 수 있다.

26) ㉠ ㉢ [의문문] ㉢ ㉢은 '어디가 부정칭 대명사로 사용된 경우이다. '어디 가?'라는 질문에 대해 특정한 장소를 알려 주지 않고 '정해지지 않은 어떤 곳을 간다.'라는 의미로 '응'이라고 대답을 함으로써 의사소통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에서는 '뭐 먹었어?'라는 질문에 특정한 음식을 답하였으므로 '뭐'는 부정칭 대명사의 예가 아니다. ㉠ ㉠ '누가'에 대한 대답으로 특정한 사람을 대답하지 않았으므로 '누가'는 부정칭 대명사의 예이다. ㉢ 이 문장에서 '어디'는 가리키는 곳을 특정하여 묻는 의문사로 사용되지 않았다. 대답에서의 '노랫소리'는 '이상한 소리에 대한 답이다. ㉣ '뭔가'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어떤 것'의 의미이므로 부정칭 대명사의 예이다. ㉤ '언제'는 조사 '든'과 함께 쓰여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어떤 때를 의미한다. B가 '4월 이후'라는 특정한 시간을 대답하기는 하였지만, A가 '언제'를 사용한 의도는 '아무 때나'의 의미로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부정칭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27) ㉠ ㉢ [품사의 특성] ㉢ '자기는 앞에서 이미 말했거나 나온 사람을 다시 가리키는 재귀칭 대명사이다. 여기에서의 '자기'는 석호를 가리킨다. ㉠ ㉠ '어디'는 의문문에 쓰여서 모르는 어느 곳을 가리키는 미지칭 대명사이다. ㉡ '당산'은 재귀칭 대명사 '자기'를 아주 높여 이르는 말로, 여기에서는 앞서 나온 할아버지를 가리킨다. ㉣ '저희'는 앞에서 이미 말했거나 나온 사람들을 다시 가리키는 재귀칭 대명사이다. '우리의 겸양 표현으로 쓰이는 '저희'는 '저희 선생님'이십니다.', '저희가 하겠습니다.'정도로 쓰인다. ㉤ '어디'는 정해지지 않은 대상을 가리킬 때 쓰이는 부정칭 대명사이다.

28) ㉠ ㉢ [수식어] ㉠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에서 유래된 관형사 '다른'은 '당장 문제 되거나 해당되는 것 이외의'의 의미를 갖는데, 이는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하다.'라는 '다르다와 의미상 차이를 갖는다. ㉠이 관형사 '다른'이 쓰인 예인 반면, ㉡은 '서로 같지 아니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다르다의 활용형 '다른'이 쓰인 예이다. 관형사 '바른'은 ㉠과 같이 '오른(오른쪽을 이르는 말)'의 의미로 쓰인다. ㉢은 '겉으로 보기에 비뚤어지거나 굽은 데가 없다.'의 의미를 갖는 '바르다의 활용형 '바른'이 쓰인 예이다. 따라서 사전에 등재된 관형사가 쓰인 예는 ㉠과 ㉡이다.

29) ㉠ ㉢ [형태에 관한 조항-제15항] ㉠ '새우다의 어간은 '새우-'이므로 여기에 명사형 어미 '-(으)ㄴ'이 결합하면 '새움'이 되어야 한다. 흔히 쓰이는 '밤을 샜'은 '새다에 명사형 어미가 결합한 것인데, '밤을 새움'의 잘못된 표현이다. '새다'는 '밤이 새다에서처럼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문장에서 사용된다. ㉡ '사다의 어간은 '사-'이므로 여기에 명사형 어미 '-(으)ㄴ'이 결합하면 '삼'이 되어야 한다. ㉢ '풀다의 어간은 '풀-'이므로 여기에 명사형 어미 '-(으)ㄴ'이 결합하면 '푼'이 되어야 한다. ㉣ '불다의 어간은 '불-'이므로 여기에 명사형 어미 '-(으)ㄴ'이 결합하면 '불'이 되어야 한다. ㉤ '깨닫다의 어간은 '깨닫-'인데 여기에 명사형 어미 '-(으)ㄴ'이 결합하면 '깨달음'이 되어야 한다. ('길을 걷다가 '길을 걸음'으로 쓰이는 것과 같이 'ㄷ'으로 어간이 끝나는 경우 '-음'이 결합한 후 'ㄷ'이 'ㄹ'로 바뀐다.

30) ㉠ ㉢ [문법의 변천] ㉠ '햅살'에 포함되어 있는 '햅'은 <보기 1>의 '줍살'과 마찬가지로 '햅'의 어두 자음군 'ㅃ'으로부터의 흔적이 남은 것이다. ㉡ <보기 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내가'는 대명사 '나'에, '네가'는 대명사 '너'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한 형태에 훗날 등장한 주격 조사 '가'가 붙은 것이다. ㉢ '수탉'은 <보기 1>의 '수컷'과 마찬가지로 앞말이 'ㅎ'을 맨 마지막 음으로 가지고 있었으며, 이 'ㅎ'과 뒷말의 'ㄷ'이 축약된 'ㅌ'이 남아 있는 것이다.

31) ㉠ ㉢ [문장 표현의 기능을 묻는 유형] '자네의 진로 계획을 좀 듣세.'에서 듣는 행위의 주체는 화자로 한정된다. 따라서 이 문장은 화자가 서술어에 포함된 행동을 하기 위해 청자의 협조를 요청하는 청유문에 해당한다. ㉠ ㉠ '우리 여기서 좀 쉬자꾸나.'는 화자가 청자에게 함께 쉬기를 요청하는 청유문이다. ㉡ '이제 그만 놓고 너도 숙제 좀 하자.'에서 숙제를 하는 주체는 청자인 '너'로 한정되므로, 이 문장은 서술어에 포함된 행동을 청자만하기를 요청하는 청유문이다. ㉣ '저 좀 내립시다.'에서 내리는 주체는 화자로 한정되므로, 이 문장은 화자가 서술어에 포함된 행동을 하기 위해 청자의



협조를 요청하는 청유문이다. ⑤ '오늘 신문 좀 보자.'에서 신문을 보는 주체는 화자로 한정되므로, 이 문장은 화자가 서술어에 포함된 행동을 하기 위해 청자의 협조를 요청하는 청유문이다.

32) **답** ① [중세 국어의 문법을 이해하는 유형] ㉠의 '바미'는 체언 '밤'에 부사격 조사 '이'가 결합한 형태이다. 이때 '밤'은 모음이 양성인 말이고, 시간을 나타내는 무정 체언으로 '이'는 부사격 조사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의 '알피'는 체언 '앞'에 부사격 조사 '이'가 결합한 형태이다. 이때 '앞'은 모음이 양성인 말이고, 방향을 나타내는 무정 체언으로 '이'는 부사격 조사의 기능을 하고 있다. **오** ⑥의 '늑미'는 체언 '늑'에 관형격 조사 '이'가 결합한 형태이다. 이때 '늑'은 모음이 양성인 말로 뒤에 오는 체언 '뽕'을 수식하기 위해 '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관형격 조사이다. ㉢의 '우희'는 체언 '우'에 부사격 조사 '의'가 결합한 형태이다. 이때 '우'는 모음이 음성인 말이고, 방향을 나타내는 무정 체언으로 '의'는 부사격 조사이다. ㉣의 '아들이'는 체언 '아들'에 관형격 조사 '이'가 결합한 형태이다. 이때 '아들'은 끝에 오는 모음이 양성인 말로 뒤에 오는 체언 '말'을 수식하기 위해 '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관형격 조사이다.

33) **답** ① [중세 국어의 특징을 묻는 유형] 15세기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와 달리, 중성에서 'ㅅ' 발음이 실현된다고 했으므로 '스뫼다'에서 '뫼'는 'ㅅ'과 동일하게 발음하지 않고 중성에서 'ㅅ' 발음을 실현하여 발음했다고 볼 수 있다. **오** ② '쁘들'은 현대 국어에서는 '뫼'로 적고 [뜨슬]로 발음하지만 15세기에는 초성에 오는 'ㅃ'은 'ㅂ'과 'ㄷ'을 모두 발음했다고 했으므로 '쁘'의 'ㅃ', 'ㄷ'이 모두 발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③ '노마'는 체언 '놈'이 자음으로 끝나고 있으므로 주격 조사 '이'를 붙인 후에, 연철된 표기이다. ④ '수밖'의 순경을 'ㅂ', 즉 'ㅃ'은 현대 국어에는 쓰이지 않는 음운이다. ⑤ 'ㅅ' '데미나라'는 체언 'ㅅ'에 조사 '이'나라가 결합하면서, 앞 음절의 중성을 뒤 음절의 초성에 이어 적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34) **답** ② [표준어 규정의 주요 내용] ㉠ '차례'의 '레'는 '다만 2'에서 언급하는 '예, 레'에 해당하기 때문에 [레]로 발음하면 안 된다. ㉡ '의견'은 단어의 첫음절에 '의'가 쓰인 경우이기 때문에 '다만 4'에서 언급하는 '의'를 [ㅣ]로 발음해도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다. **오** ① '다쳐'의 '쳐'는 '다만 1'에서 언급하는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쳐'이기 때문에 [치]로 발음한다. ㉢ '지혜'는 '다만 2'에서 언급하는 '예, 레' 이외의 'ㄱ'이 쓰인 경우이기 때문에 [지혜] 또는 [지혜]로 발음한다. ㉣ '희망'의 '희'는 '다만 3'에서 언급하는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에서 'ㄴ'이 쓰인 경우이기 때문에 [히]로 발음한다. ㉤ '동생'의 '의'는 '다만 4'에서 언급하는 조사 '의'이기 때문에 [예]로 발음해도 허용한다.

35) **답** ④ [품사의 특성] ㉠ '우리'에는 청자인 철수도 포함된다. 이 문장을 높임 표현으로 바꿀 때 '우리'를 '저희'로 바꾸기 어렵다는 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 ① '우리'에는 청자인 석호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문장을 높임 표현으로 바꿀 때 '우리'를 '저희'로 바꿀 수 있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우리'에는 청자인 선배님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문장은 높임 표현인데 '우리'를 '저희'로 바꿀 수 있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우리'에는 청자인 선생님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문장은 높임 표현인데 '우리'를 '저희'로 바꿀 수 있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우리'에는 청자인 애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문장을 높임 표현으로 바꿀 때 '우리'를 '저희'로 바꿀 수 있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6) **답** ⑤ [단어의 배열법에 따른 합성어의 종류] ⑤ '보살피다'는 연결 어미가 없이 어간 '보-'와 '살피-'가 직접 결합하기 때문에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오** ① 관형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우리말 문장의 일반적인 통사 구성 방식이기 때문에 '어느새'는 통사적 합성어이다. ② '꽃(이) 피다'처럼 체언과 용언으로 구성되는 것은 우리말 문장의 일반적인 통사 구성 방식이기 때문에 '힘들다'는 통사적 합성어이다. ③ 부사가 용언을 수식하는 것은 우리말 문장의 일반적인 통사 구성 방식이기 때문에 '덜하다'는 통사적 합성어이다. ④ 용언의 관형사형이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우리말 문장의 일반적인 통사 구성 방식이기 때문에 '뜯소문'은 통사적 합성어이다.

37) **답** ④ [중세 국어의 이해] ④ 현대 국어의 '빌먹으며'는 용언의 연결형과 용언으로 구성된 통사적 합성어임에 비해, 중세 국어의 '빌머거'는 연결 어미가 없이 어간 '빌-'과 어간 '먹-'이 결합하는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오** ① '술지니'와 '살찌니'는 모두 통사적 합성어이다. ② '도라오다'와 '돌아오지'는 모두 통사적 합성어이다. ③ '니러셔니다'와 '일어섰습니다'는 모두 통사적 합성어이다. ⑤ '오르느리샤'와 '오르내리시어'는 모두 비통사적 합성어이다.